

이달의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소년의 재범 방지와 사회 적응을 통한 자립을 도모하며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 공동체 지향

기획재정부는 '23년 5월의 협동조합으로 주거지원 사업, 대안교육지원 사업, 취·창업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며 학교·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를 소개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이하 청소년자립학교)」는 대학(4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행 청소년 시설, 시민단체가 공동 진행한 ‘시설보호 비행 청소년의 자립 지원 모형 개발(’17-’19/한국연구재단)’ 연구 결과물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 꿈’ 사업에 지원해 선정되면서 시작되었고, '19년 조합원 8명이 출자금 4.5백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청소년자립학교」는 ①가족이 없거나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주거지원*, ②기초학습과 인성교육 및 기초체력 강화 등을 위한 대안교육지원, ③‘청년식당’ ‘청년카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과 인턴십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 역량을 개발하는 취·창업지원, ④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지원하는 먹거리 돌봄망 구축 사업**, ⑤청년 1인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청년고독사예방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한 연간 매출액은 약 2.7억 원('23년 경영공시 기준)이다.

* '23년 4월부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지정받아 「소년법」 제32조제1항 제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6개월간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대안 가정 역할 수행

** '21-'22년간 월드비전·굿네이버스 등 8개 기관과 협업해 총 17,380개 도시락(39,040,000원 상당) 지원

특히, 지역과 상생을 위하여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직매장의 생산물을 ‘청년식당’의 식재료로 활용, 이를 통해 지역 농민이 생산한 좋은 먹거리를 지역민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자립학교」 안윤숙 이사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잘 먹고 잘 놀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도약을 꿈꾼다.”라며 “학교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소년의 가정이자 가족으로서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행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전했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국	책임자	과 장	윤영귀 (044-215-5930)
	지속가능경제과	담당자	연구원	강민지 (hikmj@korea.kr)

□ 사례1

○○은 블루하우스(주거지원시설)에서 1년을 지내다 독립 후 청년식당에 입사했다. 처음 입사해서 3개월을 일했는데,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할 때는 한 달을 버티기 어려웠다고 한다. 직업훈련을 받겠다고 퇴사를 했는데 2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청년식당에 입사했다. 재입사 후 8개월을 버티었다. 그런데 갑자기 게임중독에 빠져 출근하지 않더니 결국 자진 퇴사를 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컴퓨터를 선물로 준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빚이 9백만 원이 되었다. 게임중독에 빠진 것을 알고 매일 설득하여 컴퓨터를 버리게 했더니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청년식당에서 1년 버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량이 큰 친구였지만 지금까지는 그 에너지를 나쁜 방향으로만 사용했었다. 청소년자립학교에서 교육받고,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이제는 건강한 에너지로 가득한 ○○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사례2

△△은 미혼모이다. 22살인데 6살 아들이 있다. 청년식당에 입사해 11개월째 일하고 있다. 사실 입사 5개월째부터 방황하기 시작했다.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렸다. 결국 지각이 잦아지더니 무단결근으로 이어졌다. △△의 지능은 매우 낮은 경계에 있다. 일하다가 멍해지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아이였다. 청년식당 운영에 영향을 미칠 만큼 아이를 안정시키는 것에 노력을 쏟았다. 퇴사를 시키면 △△의 아이까지 영망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결국 한 달을 휴직하면서 다른 일을 경험하도록 했다. 청년식당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일 찾아오더니 다시 청년식당에서 일하겠다고 했다.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해보니 일도 힘들고, 무엇보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본인을 너무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청소년자립학교와 청년식당을 통해 시간과 기회를 주면서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지지하고 조력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 진정한 자립도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 사례3

◇◇은 보호 종료 청소년이고, 24살에 아빠가 되었다.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더니 어느 날 청년식당에서 일하고 싶어 했다. 일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는 창업을 하고 싶어 했다. 청년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보니 의욕이 앞섰고, 자존감도 너무 높았다. 지저분하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표가 해야 할 일을 본인이 하겠다고 나섰다. 다른 아이들을 불러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런 행동을 보면서 경영 수업을 시키기 시작했다. 우선, 단순 기술을 배우는 데 급급하지 말고 1년을 버티고 다른 사람의 밥 먹는 모습이 예뻐 보여야 한다고 하는 등 생각을 바꾸는 교육을 했다. 또한, 높은 자존감은 때때로 가장 낮은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가 필요하기도 하고, 겸손하고 정정당당해야 한다고 교육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보니, ◇◇은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청년식당 2호점을 스스로 문 열고 마감까지 하면서 잘 운영하고 있다.

참고2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 개요 및 활동 사진

□ 조합 개요

조합명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	이사장	안윤숙
인가일	2019. 7. 24.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조합원 수	8명('23. 경영공시)	조합원 구성	생산자 1명, 자원봉사자 2명, 후원자 5명
출자금	4,500,000원('23. 경영공시)	매출액	272,392,213원('23. 경영공시)
주요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블루하우스'(주거지원) 및 대안학교 개소,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 설립 인가(여성가족부) ○ (2020년) '청년식당'(취·창업지원) 1호점 개소 ○ (2021년) 전라북도 협동조합 대상 수상(전라북도), '청년식당' 2호점 개소 ○ (2022년) 베스트 협동조합 어워드 우수상 수상, 사회적기업 인증(고용노동부), '청년카페' 및 '청년식당 반찬코너(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내)' 개소 ○ (2023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바자울 청소년회복센터' 개소 		
협동조합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 기초학습과 인성교육 및 사회적 향상을 모색하는 대안교육지원 사업,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취·창업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주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의 주거지원 사업 ○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교육 및 직업체험 사업 ○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교육 및 취·창업지원 사업 ○ 학교 밖 청소년의 기초학습보장 및 자기계발지원 사업 		

□ 조합 활동 사진



취·창업지원사업을 위한 '청년식당' 운영



경제적 자립을 위한 경제 플랫폼(식당, 카페 등) 구축



먹거리 돌봄망 구축을 위한 도시락 지원사업



대안교육 지원을 통한 기초역량 강화사업